

“연말연시는 문화 나들이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풍성’

“문화나들이로 차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 오붓한 연말과 신년을 보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2009년 1월8일~2월26일까지 매주 목요일 가족이 함께 새해 소망을 담은 솟대를 만들어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세우는 ‘박물관에서 꿈꾸는 새 희망-희망이 솟는 새, 솟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통 문화인 ‘솟대’의 의미와 제작 방법 등을 배운 뒤 가족이 직접 솟대를 만들어 보는 체험 행사이다. 접수는 29일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매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20~30팀을 선별한다. 재료비는 2천원. 문의 062-570-7053.



29일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근대 한선과 조선 도구’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유심히 유물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제공>

화, 근대 개항도시와 한선, 근대의 외래선박과 항해도구 등이 전시된다. 한선은 전통 방법으로 만든 우리 배를 뜻하며 그중에서 근대 한선은 1876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우리 배를 말한다. 문의 061-270-2083~4.

강진 백련사에서는 가족이 함께 산사에 머물면서 신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덕산 해넘이 해맞이 새해 발원’ 행사를 갖는다. 가족들끼리 한 해 소원을 담은 연을 만들고 캠프 파이어 및 가족 장기자랑, 선물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새해 첫날 만덕산

(해발 409m)에 올라 일출을 본 뒤 산신제를 지내고 소원을 매단 연을 날려보낸다. 문의 061-432-0837.

광주시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가족 여행 프로그램인 ‘페밀리가 뿔다’를 마련했다. 내년 1월10일 해남 일대를 답사하는 ‘해남 버섯이야기’와 1월18일 강진 지역을 문화 답사하는 ‘강진 도자기이야기’를 함께 진행한다. 참가비는 4만5천~5만원. 문의 062-650-1000.

/오광록·이은미기자 kroh@kwangju.co.kr

영화도 보고 퀴즈도 풀고

광주극장 31일 특별 프로그램

2008년 마지막 날 영화의 매력 속에 푹 빠져 보는 건 어떨까. 예술영화 전용극장인 광주극장은 31일 오후 8시부터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프랑스 영화 ‘사랑의 찬가(사진)’를 한차례 특별상영한다.

2007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작인 ‘사랑의 찬가’는 자유분방한 파리의 신세대 이스마엘과 여자 친구 줄리, 그리고 그 두사람과 기묘한 우정을 나누는 알리스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영화로 배우들의 세련된 연기와 다양한 감성의 노래를 만날 수 있다.

밤 9시40분에는 2008 영화퀴즈왕 대회(참가비 무료)가 열린다. 1부에서는 영화 속 장면을 보고 제목을 맞추는 ‘영상퀴즈’가 진행되며 2부는 영화음악을 듣고 제목을 맞추는 ‘사운드 퀴즈’로 이뤄진다. 으뜸상 등에게는 DVD 타이틀과 광주극장 영화관람권을 선물로 준다. 개인, 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극장 측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간식거리를 준비했으며 간단한 먹장거리를 지참해도 된다.

한편 이날 광주극장에서는 뱀파이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웨



덴 영화로 인디 영화 흥행 대박을 터트린 ‘벳 미인’을 비롯해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재페니메이션 ‘피아노의 숲’, 열정적으로 활동중인 노인 로큰롤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로큰롤 인생’, 아름다운 화면이 관객들을 사로잡는 ‘더 풀’ 등이 상영된다. 문의 062-225-885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 전시 공간 광주 4곳 신설

올해 광주지역에 4곳의 갤러리가 문을 여는 등 전국에서 모두 140여 곳의 미술 전시공간이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달진미술연구소(소장 김달진)는 29일 “2008년 전시공간 변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새로 생긴 미술관, 화랑, 복합전시공간, 대안공간, 카페갤러리 등이 147곳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북구 매곡동 시안갤러리, 동구 충장로 충장갤러리 2관, 동구 공동 SM갤러리, 서구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등 4곳이 문을 열었다. 타 지역은 서울 93곳, 부산 8곳, 인천 5곳 등이었다.

연구소가 전시공간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전시공간이 생겨났다. 1999년에는 1년간 신설된 공간이 25곳에 그쳤고, 2000년에는 32곳, 2001년 23곳, 2002년 26곳, 2003년 38곳, 2004년 49곳, 2005년 51곳, 2006년 63곳, 2007년에는 107곳이었다.

서울지역 구별로는 종로 40곳, 강남 34곳, 마포 6곳, 송파 5곳, 중구 4곳 등 순이었다.

반면 폐관한 전시공간은 C파인 아트갤러리, 이화익갤러리 강남분점, 갤러리디자인너우, 세이갤러리, 스페이스판, 두산위브더제니스갤러리 등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사이버문학인협회 ‘2008 무진주문학’ 펴내

온라인을 통해 문학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한국사이버문학인협회(회장 나일환·이하 협회)가 ‘2008 무진주문학’을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는 2008무진주문학대상 작인 정삼미씨의 ‘연꽃늪지’와 김민구씨의 ‘북을쳐라’가 수록됐다. 또 신춘문에 당선작인 나현주씨의 ‘서광주역에서’ 등을 비롯해 마옥, 윤재임씨 등 무진주문학 신인상 당선 작품인 시와 수필 20여편도 함께 실렸다.

이밖에 강대영, 이진안씨 등 협회회원 작품 20여편과 신양수씨의 ‘동지 찾아간 두루미’ 등 지역의 일간지를 통해 발표된 시 44편도 수록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박수근 그림 또 ‘위작’ 논란



70억 상당 ‘떡 만드시는 어머니’ ‘아트 딜러’ 연세의료원에 기증 10월 광주시립미술관에도 타진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가 1년여간 위작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최근 연세의료원이 기증받은 또 다른 박수근의 작품도 위작 의혹을 사고 있어 주목된다.

문제의 작품은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아트딜러 A 씨가 29일 기증식을 열고 연세의료원에 남긴 91×53cm 크기의 박수근 유화 ‘떡 만드시는 어머니’ <사진>로, A 씨는 보관상태가 양호해 감정가격이 7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의료원 측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제미술과학연구소 최명운(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소장은 “연구소의 도상 분석과 물감 분석 등을 통해 위작 판정을 내렸던 그림이다”면서 “1945년 그려졌다는 이 작품에는 1954년 이후 박수근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보이는 등 진품 여부 논의 가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2년간 ‘떡 만드시는 어머니’ 이외에 같은 크기(30호) 박수근의 작품 5점과 이중섭의 소 그림 2점 등을 갖고 있다면서 광주시립미술

관 등을 접촉, 이 그림의 기증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10월 광주 시립미술관에 박수근의 미공개 유화 ‘귀향’ (113×45cm) 등 작품 2점을 기증하려고 했다. ‘귀향’은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또 다른 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귀향’을 기증 받은 뒤 추가로 A 씨가 소유하고 있는 박수근 화백의 또 다른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면서 “‘빨래터’ 진품 논란이 끝나지 않고, 이들 작품의 진품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귀향’을 기증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작품 소장자가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림 값의 10~20%인 사례를 챙기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작품을 기증했다는 경력을 활용해 다른 소장품의 진위를 세탁할 수 있다”며 “기증받는 쪽도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그림의 위작 의혹에 대해 A 씨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소장 경위는 향후 회고록을 통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노트르담 드 파리’ 갈라 콘서트 ▶31일 광주문예회관

화제를 모았던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갈라 콘서트가 31일 오후 7시, 밤 10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는 한국어 버전 공연에 참여한 파지모도 역의 윤형렬, 에스메랄다 역의 오진영, 그랑그와르 역의 박은태, 프롤로 신부역의 서범석씨 등이 출연한다.

‘노트르담 드 파리’ 홍보대사인 이다도시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화려하고 현장감 있는 영상무대와 파워풀한 가창력, 멋진 안무가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진다.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대성당들의 시대’를 비롯해 파지모도와 프롤로, 페뷔스가 함께 부르는 남성 3중창 ‘아름답다’, 파지모도가 절규하듯 부르는 ‘춤을 취요 에스메랄다’ 등이 주 레퍼토리다.

또 올해 열린 한국뮤지컬 대사에서 ‘노트르담 드 파리’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서범석씨의 ‘신부가 되어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에스메랄다 역의 오진영이 부르는 ‘보헤미아’ 등도 인상적인 곡이다. 티켓 가격 8만 8천원~5만 5천원. 문의 062-372-321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 에너지 기술의 中心

세계, 에너지 기술의 중심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주)는 2008년 12월 30일 화요일에 개최된 '2008 에너지 기술의 중심' 행사에서 '세계, 에너지 기술의 중심'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주)는 2008년 12월 30일 화요일에 개최된 '2008 에너지 기술의 중심' 행사에서 '세계, 에너지 기술의 중심'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주)는 2008년 12월 30일 화요일에 개최된 '2008 에너지 기술의 중심' 행사에서 '세계, 에너지 기술의 중심'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주)는 2008년 12월 30일 화요일에 개최된 '2008 에너지 기술의 중심' 행사에서 '세계, 에너지 기술의 중심'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주)는 2008년 12월 30일 화요일에 개최된 '2008 에너지 기술의 중심' 행사에서 '세계, 에너지 기술의 중심'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Korea Ga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